



담당부서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     |           |
|---------|-----|-----------|
| 도시경관담당관 | 김대권 | 2133-1920 |
| 빛디자인팀장  | 이은주 | 2133-1935 |
| 담 당 자   | 임보형 | 2133-1938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매

## 화려한 빛과 음악 광화문광장의 밤 수놓는다.. '서울라이트 광화' 19일 개막

- 서울시, 12.19.(월)~31.(토) 매일 18시~22시 광화문광장 일대 웅장한 빛의 축제
- 광장 내 22개 조명기둥과 세종문화회관, (주)KT빌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화벽화'
- 서울 빛초롱, 광화문광장 마켓 동시 개최 풍성한 볼거리..31일 22시엔 신년 메시지 송출

- 19일(월) 저녁 6시, 어둠이 내려앉은 광화문광장 일대를 화려한 빛과 음악이 가득 채운다. 광화문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6m 높이의 조명기둥 (라이팅 폴) 22개에서 뿜어나온 빛 줄기가 밤 하늘을 수놓고, 광화문광장 대형 미디어파사드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주)KT빌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 '광화벽화'에서는 웅장한 빛의 쇼가 펼쳐진다.
- 서울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광화문광장을 희망의 빛으로 채울 대규모 미디어파사드 쇼 '서울라이트 광화'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와 연말, 꼭 가봐야 할 서울의 새로운 야경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라이트 광화’는 19일(월)부터 31일(토)까지(13일 간) 매일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광화문광장 전역과 광장 인근 건물 3개소(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KT빌딩)에서 펼쳐진다.
  - ‘서울라이트 광화’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 일대를 ‘미디어아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서울시가 준비한 첫 신호탄으로 주변 일대 건물 입면에 화려한 미디어파사드를 수놓아 ‘빛을 통한 감성 도시 서울’을 알린다.
  -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는 ‘2022 서울 빛초롱’과 5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이 동시에 열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광화문광장이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찬다.
  
- 18시, 19시30분, 20시, 21시에는 메인 쇼에 해당하는 웅장한 ‘시그니처 쇼’가 10분 간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시그니처쇼가 끝나면 각 장소별로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토)에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22시부터 10분간 ‘신년 희망메시지’로 ‘서울라이트 광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 우선, ‘시그니처 쇼’는 ‘세종의 하늘, 새로운 빛을 입다’라는 주제로, 총 3장으로 구성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22개의 라이팅 폴(lighting pole)의 화려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주)KT빌딩 가림막 미디어파사드, 역사박물관 ‘광화벽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에서 웅장한 쇼가 펼쳐진다.
  - 제1장 세종의 상상,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여는 ‘빛의 탄생’ : 세종의 상상에서 시작된 7개의 별 ‘철정산’에서 시작한 시간이 오늘날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다.
  - 제2장 광장 속의 시간 그리고 우리 ‘창의의 시대’ : 조선의 육조거리 광장

이 현재로 이어지고, 그동안 광화문과 맞닿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간을 채우는 모습을 그렸다.

- 제3장 함께 바라보는 광화문 ‘여민락, 함께 즐기다’ : 세종대왕이 직접 작사·작곡한 ‘여민락; 백성들과 함께 즐기다’의 의미를 담아 광화문광장이 새로이 열리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모두가 함께 광장을 즐기는 모습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

□ ‘시그니처 쇼’가 끝나고 개별 장소별로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쇼(사이트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전면에는 경쾌한 음악과 서울의 낮익은 풍경을 함께 보는 ‘비바 서울(Viva Seoul)’을 비롯해 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등에서 볼 수 있다.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비바 서울) : 서울의 낮익은 풍경들을 회화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영상과 경쾌한 음악의 조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 역사박물관 ‘광화벽화’(EXIT: 한계를 넘어) : 공간과 공간을 경계 없이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조명 캐릭터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빛을 투과해서 옥상의 조명 빛으로 솟아오르며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하여 제작됐다.
-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서울라이트 광화’ 연계전시) : 국내 유명작가 2인(하준수, 박제성), 해외 유명작가 2인(막심 제스코브, 위치엔 쏬)이 참여해 ‘자연·도시·미래의 공존’을 주제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를 준비했다.

#### - 주요 작품 소개

- ▶ **하준수** 작가, 〈광화 光化〉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작품으로, 역사를 본받아 다시 태어나는 도시, 우리가 바라는 도시, 선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광화(光化)의 철학을 담은 도시를 표현한다.

- ▶ 박제성 작가, <내일일기 82392>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를 활용한 작품으로,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인류와 기술이 공진화해 나가는 미래를 표현한다.
- ▶ 막심 제스코브 작가 (Maxim Zhestkov), <웨이브즈 (Waves)>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작품으로, 불가피한 변화와 변형을 겪는 파도를 수많은 입자들의 강력한 흐름을 표현한다.
- ▶ 위치엔 쑨 작가 (Yuqian Sun), <하이보그 포레스트 (Hyborg Forest)> AI 제너레이션 기법과 서울의 위성사진을 활용한 작품으로, 하이보그(하이브리드와 싸이보그의 합성어)를 통해 미래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 또한, 단순히 보는 걸 넘어 시민들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어보는 참여형·체험형 미디어아트도 운영된다. KT건물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이는 ‘뚝뚝뚝뚝 서울’과 세종문화회관 앞 데크에 설치되는 ‘시간의 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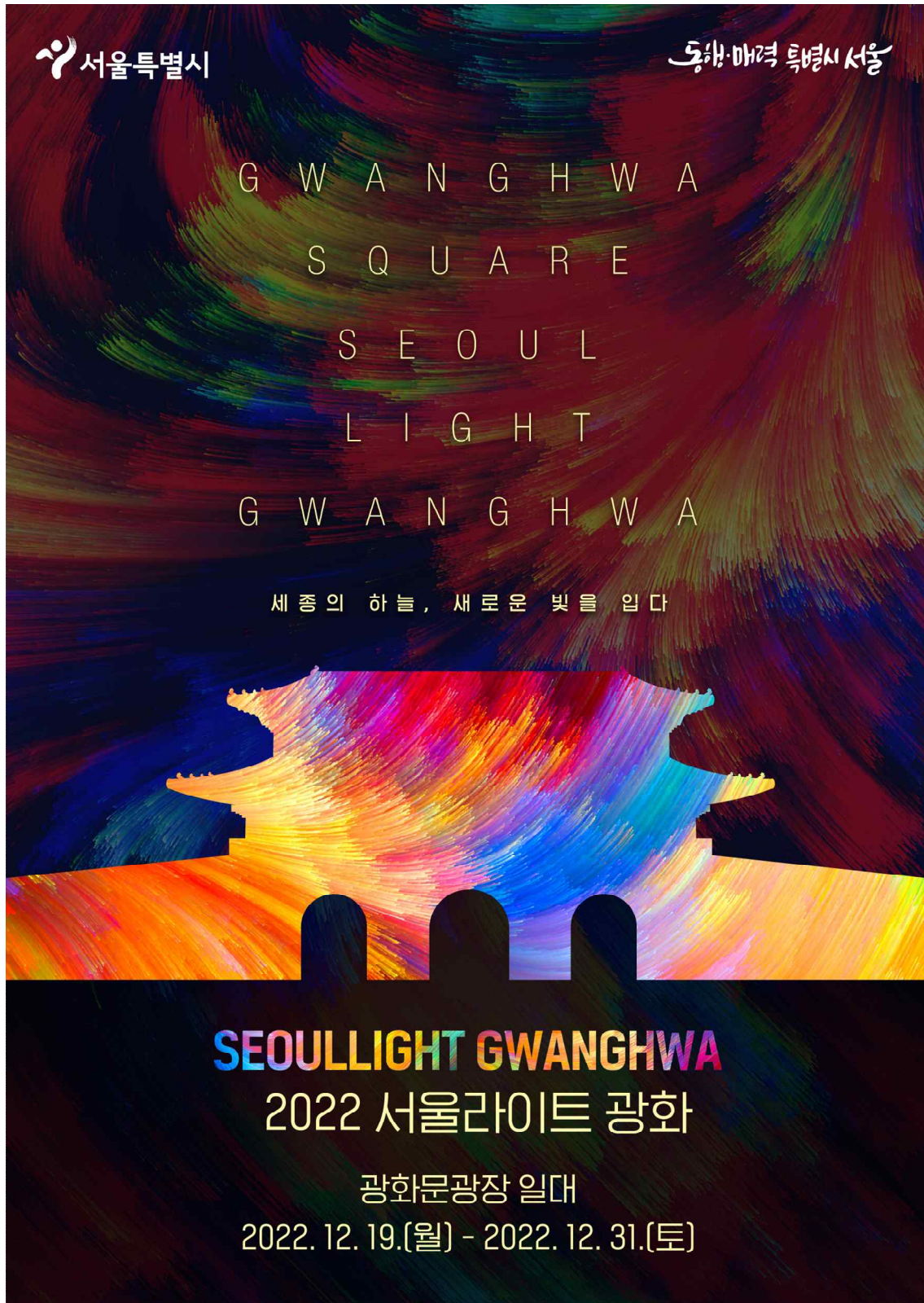
○ ‘뚝뚝뚝뚝 서울’은 광장 중앙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비치는 행동들이 KT 건물 외벽에 거대한 캐릭터로 연동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간의 틈’은 미디어아트로 둘러싸인 세로로 긴 박스 안에 들어가서 환상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다.

□ 서울시는 ‘서울라이트 광화’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한다. 많은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24(토), 31일(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할구청의 심의를 마쳤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현장 안전 점검과 각 기관장 주재의 사전 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안전한 행사를 대비하였다.
- ‘서울라이트 광화’의 시그니처 쇼 구성과 콘텐츠 기획(큐레이션)은 100주년 서울전국체전 개·폐회식 제작을 감독했던 오장환 감독이 직접 지휘했다.
  - 오장환 감독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협력 감독, 부산국제관광도시 유치 프레젠테이션 총감독, 그리고 2024 강원동계유스올림픽 유치전문위원 및 프레젠테이션 총감독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라이트 광화’를 찾은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서울라이트 광화’를 감상하고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인스타그램 계정(@seoullight\_official)을 통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광화문광장은 도시공간적으로 매력적인 장소이다.”며 “앞으로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아트가 야간에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라이트 광화> 포스터
2. <서울라이트 광화> 배치도
3. <서울라이트 광화> 프로그램



## 붙임 2 <서울라이트 광화> 배치도

서울라이트 광화



### 전체 배치도

시그니처 쇼 순서 : ① → ② → ③ ④ ⑤ / 미디어 체험존 : ⑥



□ 사업개요

○ 기 간 : '22. 12. 19.(월) ~ '22. 12. 31.(토) 18:00 ~ 22:00

○ 프로그램 구성

| 구 분                   |            | 장 소  | 콘 텐 츠   |   |
|-----------------------|------------|--|---|---|
| 시그니처<br>쇼<br>(‘10)    | 미디어<br>파사드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br><br>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br><br>대한민국 역사박물관<br>‘광화벽화’<br><br>(주)KT 건물 외벽<br>미디어파사드 |    |   |
|                       | 조명         | 광화문광장  |   |   |
| 사이트<br>프로그램           | 미디어<br>파사드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 비바 서울   |  |
|                       |            |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 서울라이트<br>광화 연계전시  |  |
|                       |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br>광화벽화   | Exit : 한계를<br>넘어  |  |
|                       | 미디어<br>체험존 | 세종문화회관 앞 데크  | 시간의 틈   |  |
| (주)KT 건물 외벽<br>미디어파사드 |            | 뚝뚝 서울  |    |   |
| 시즌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 일대   | 신년 메시지   |    |   |